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2016년 중국경제 평가
2.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3. 2017년 중국경제 전망

주요 내용

- 2016년 12월 14~16일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현재 중국경제를 “안정 속에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穩中有進, 穩中提质)”고 평가함.
 - 그러나 공급과잉과 수요구조 고도화 모순 노정, 경제성장 내생적 성장동력 부족, 금융 리스크 누적, 지역발전의 양극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17년에도 2013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속 개혁 추구(穩中求進)’를 경제운용의 총기조(總基調)로 유지함.
 - 2017년에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견지하고,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 한다는 방침을 설정함으로써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힘.
 - 거시경제 운영정책 기조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나, 2017년에는 다양한 금융 리스크와 자산 버블 방지에 주력할 것임.
 - 2017년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의 해’로 설정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의 5대 임무 이외에도, 농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 실물경제 촉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등을 제시함.
- 2017년에도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은 지속될 것이나, 급격한 경기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할 때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6.5% 내외로 조정되거나, 최근의 안정적 성장세 강화 등을 감안하여 6.5~7.0%로 설정될 것으로 보임.

1. 2016년 중국경제 평가

가. 2016년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

- 2016년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안정적 성장, 공급 측 구조개혁 진전 등 긍정적 평가와 양극화 등 부정적 평가가 공존함.
- [중앙경제공작회의, 12.14~16] 2016년 중국경제는 “안정 속에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穩中有進, 穩中提质)”고 평가함.
- 2016년 중국경제는 안정 추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선(穩中向好)되고 있으나, 공급과잉과 수요구조 고도화 모순 노정, 경제성장 내생적 성장동력 부족, 금융 리스크 누적, 지역경제의 양극화 등이 나타남.
- 2016년 중국경제는 안정(穩, 성장, 소득, 물가안정), 혁신(創, 신산업 성장 10% 이상), 간소화(簡, 1일 평균 1.5만 개 창업), 구조 고도화(優,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인민일보 2016.12.14)
- [중앙 정치국회의, 10.28] 안정적 성장(總體平穩)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급 측 구조개혁의 진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의 ‘양극화(分化)’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됨
- 그러나 첨단 기술 산업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 발전, 금융시장 안정, 예상보다 나은 고용여건, 소득수준 개선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나. 중국경제의 안정과 구조 개선(穩中有進)

- 경제성장률 안정(穩): 중국경제 조정기는 이미 5년을 경과하였으며, 최근 3년간 경기 안정성이 제고됨.
- 2015년 3/4분기 이후 5분기째 6%대로 성장하여 연간 목표 구간(6.5~7.0%)에서 안정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 3대 지역발전전략(장진기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일대일로)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원大省(산시 4.0%), 동북삼성(랴오닝 -2.2% 성장, 흑룡강 6.0% 성장) 지역의 저속성장 등 성장의 지역적 양극화(難)가 나타남.

그림 1.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자료: CEIC.

표 1.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단위: %)

연도	1차	2차	3차		
			전체	금융	부동산
2010	3.6	57.2	39.2	5.2	4.0
2011	4.2	51.5	44.3	5.0	4.5
2012	5.3	49.3	45.4	7.8	3.5
2013	4.4	48.0	47.6	9.4	5.6
2014	4.8	47.3	47.9	9.8	1.6
2015	4.7	41.2	54.1	19.2	3.3
2016.1~9	4.1	37.4	58.5	8.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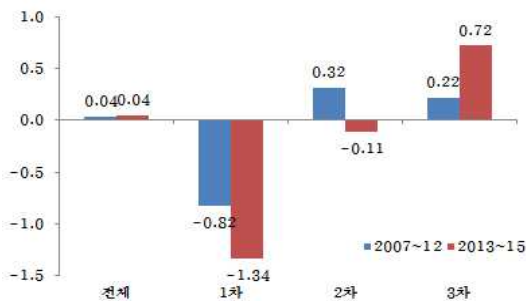
자료: CEIC.

- 산업구조 고도화(進): 2012년 3/4분기 이후 서비스 산업 성장률이 2차 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가 정착됨.
-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 분야의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難)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둔화에 따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 2016년 1~9월 부동산과 금융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각 8.7%, 8.2%임.

■ 고용 안정(穩): 대중 창업, 3차 산업 중심의 성장 등 고용친화적 성장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압력이 존재함.

- 2차 산업 성장의 고용탄력성은 하락하고 있으나, 3차 산업의 고용탄력성이 상승하면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1~9월 중 도시지역의 신규 고용은 1,067만 명으로 연간 목표(1,000만 명)를 초과하였으며, 연말까지 1,300만 명 이상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철강과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180여 만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노동공급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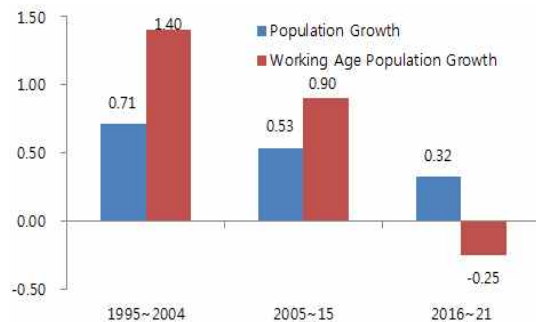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의 산업별 경제성장의 고용 탄력성



자료: CEIC.

그림 3. 중국의 인구와 노동연령인구 증가율

(단위: %)



자료: CASS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 물가안정(穩) :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과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며, 55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하던 공산품 출하가격 지수(PPI)가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그림 4. 중국의 주요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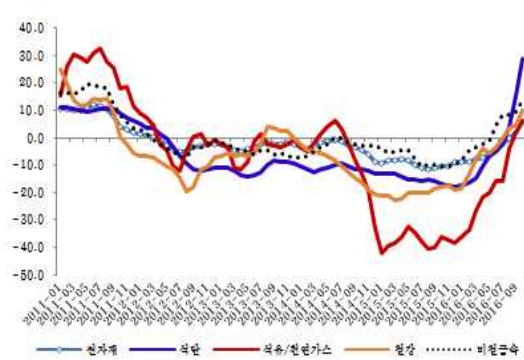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5. 주요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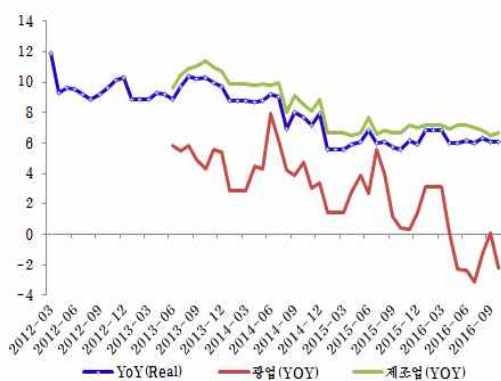
자료: CEIC.

-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세 안정(穩): 공급과잉, 수출 부진, 국내소비 부진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하락세를 유지하던 산업생산 증가율이 안정되고 있으며, 공업기업 이윤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호전됨.

- 2016년 들어 산업생산 증가율은 6% 초반에서 안정되었으며, 재고 감소, 공산품 출하가격지수(PPI) 상승, 원가절감 성과로 2/4분기 이후 공업기업의 이윤율이 제고되고 있음.
- 산업별 성장의 양극화 심화됨. 전략성 신흥 산업 생산 증가(+11%), 첨단산업 생산 증가(+10.2%), 장비제조업 증가(+8.1%) 등 신흥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과잉 업종(자동차, 철강, 비철, 기계) 및 오염 업종(광업)은 부진함.

그림 6. 산업생산증가율(부가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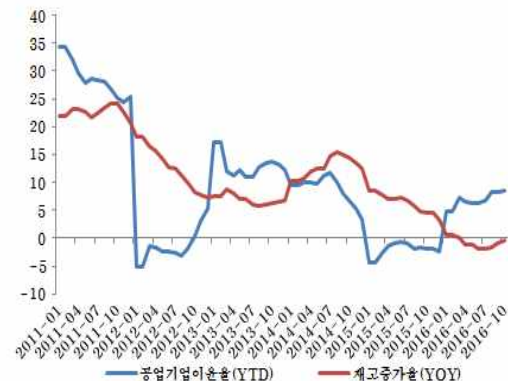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7. 중국 공업기업 재고 및 이윤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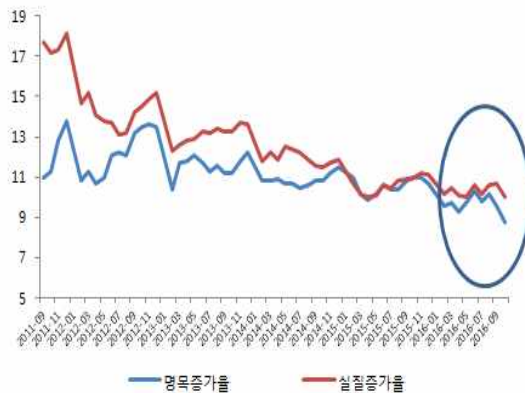
자료: CEIC.

■ 국내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가 정착됨.

- 신흥 상품(통신기기, 신에너지 자동차 등) 소비와 인터넷 소비 증가로 2016년 국내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1~11월 +10.4%)함.
- 승용차(+15.8%), SUV(+46.5%), 통신기기(+37.0%), 신에너지 자동차(+82.2%)
- 인터넷 판매 증가율: 2015년 +33.3% → 2016.1~11월 +26.2%(4.6조 위안)
- 소비 주도 성장(進):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4년 51.0% → 2015년 66.4% → 2016년 1~9월 71.0%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가 정착됨.

그림 8. 중국의 사회상품 소매총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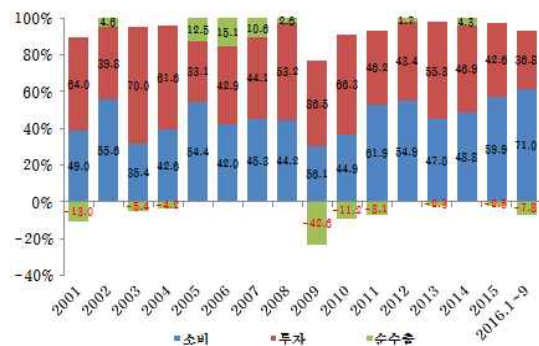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9. 중국경제의 성장기여율 추이

(단위: %)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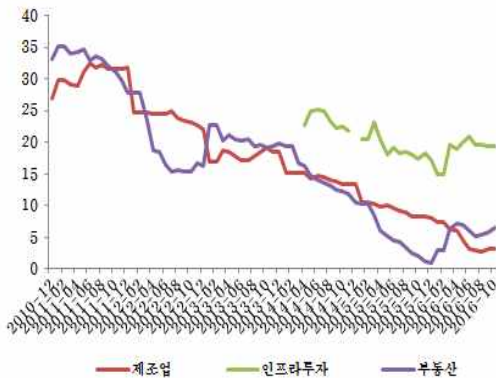
다. 중국경제의 리스크

■ 투자 리스크(難) :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구조조정과 자산기근(資産荒)에 따라 민간기업과 제조업 투자는 위축됨.

-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공급과잉 해소 및 부동산 재고 조정으로 인프라 분야 투자가 증가(1~11월 +18.9%), 부동산 투자 회복(1~11월 +6.5%)으로 고정자산투자는 8.3% 증가(1~11월)
- [민간투자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 제조업 및 민간의 제조업 투자 부진(1~11월, +3.6%)
- [부동산 투자] 1~2선 도시 부동산 분야의 버블 가능성, 부동산 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2017년에는 부동산 투자 둔화가 불가피함.

그림 10.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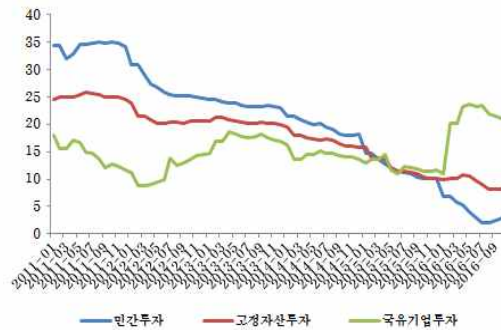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11. 투자 주체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단위: %)



자료: CEIC.

그림 12. 중국의 부동산 투자, 판매 증가율, 가격



자료: CEIC.

그림 13.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와 증가율

(단위: 조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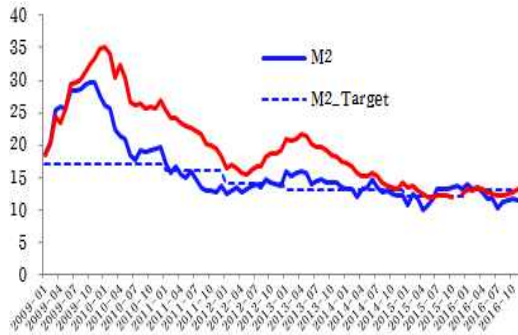
자료: CEIC.

■ 자금의 단기 유동화(難):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하고(脱实向虚) 단기 유동화가 심화되면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현상이 나타남

- [안정적 통화정책] 2016년 총통화(M2) 증가율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단 3/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 됨.
 - 총통화(M2) 증가율: 2014년 12.2% → 2015년 13.3% → 2016.11월말 11.4%(목표+13%)
 - 사회총용자 증가율: 2014년 14.6% → 2015년 +12.6% → 2016.11월말 +13.3% (목표 13%)
 - 신규 인민폐 대출: 2014년 9.4조 → 2015년 12.3조(+16.1%) → 2016.1~11월 11.4조(+9.6%)
- [유동성 함정] 유동성 증가 vs 투자 부진 → 단기유동성(M1), 부동산 대출, 기업부채 급증
 - “중국에서 이미 유동성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자금이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함.” (중국인민은행 통계국장 盛松成)
 - ※ M1증가율은 2015년 10월부터 M2증가율을 상회 → 격차 확대(M1 25.3%-M2 11.4% = 13.9%p)

그림 14. 중국의 총통화와 사회총용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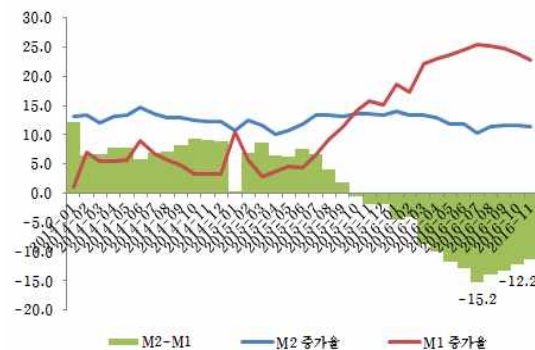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15. 중국의 M2와 M1 증가율

(단위: %)



자료: CEIC.

■ 수출 감소(難): 세계경가무역 둔화, 브렉시트 후 유로경기 둔화 등으로 1~11월 중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수출이 + 0.1% 증가로 전환됨.

- 세계경기의 불안정, 미국의 금리인상 리스크,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2017년에도 중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그림 16.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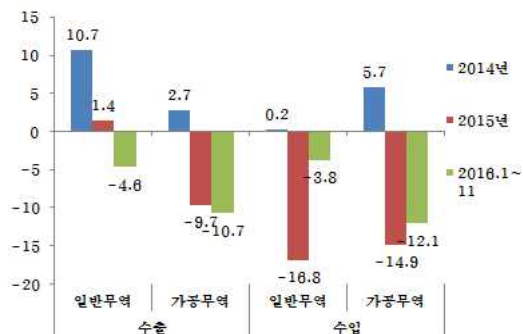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CEIC.

그림 17.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증가율

(단위: %)



자료: CEIC.

■ 위안화 지속적 절하와 자금유출(難):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이 증대되면서 단기자금 유출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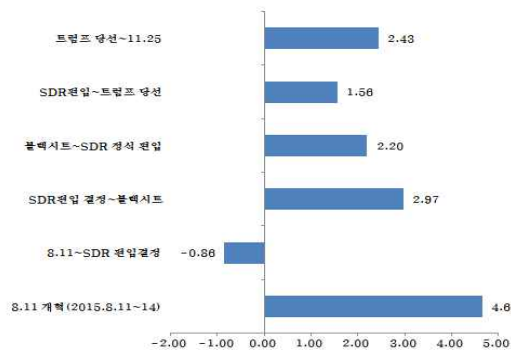
- 2015년 8월 11일 환율결정시스템 개혁 이후 위안화 절하 기대감, 미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 강세,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언급 등으로 위안화 절하 지속
 - 2016년 위안화/달러 환율: 2015년 말 6.4936 → 2016년 12월 20일 6.9468(7.0% 절하)
-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기업의 외환 차입 상황, 개인과 기업의 외화예금 증가, 달러 이외의 여타 통화 절하에 따른 평가 손(2014.7~2016.11, 2,872억 달러), 단기 외화자금 유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

국의 외환보유고 급감

- [외환보유고 급감] 2016년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05조 달러, 2016년 1~11월 중 2,788억 달러 감소
-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 등이 위안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18. 기간별 위안화 절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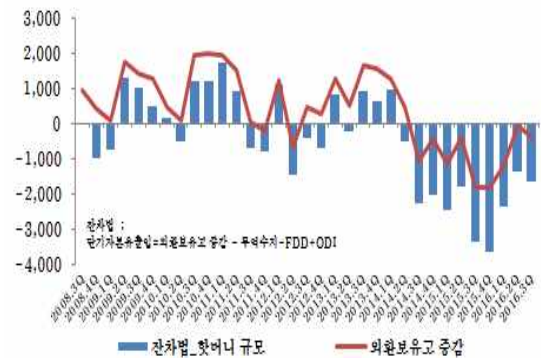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19.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감과 단기 자본유출입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

2.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 중국 공산당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를 개최, 2017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결정함.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한 해의 경제운영 성과 점검 및 실행된 정책을 마무리 짓고, 다음 해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임.
- 논의된 내용은 2017년 3월에 개최되는 全人大에서 연간 경제정책 운용목표로 공식 발표됨.

가. 2016년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정책 방향

- [경제운용기조] 2013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속 개혁 추구(穩中求進)’를 2017년에도 경제운용의 총기조(總基調)로 설정함.
- 2017년에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견지하고,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한다는 방침을 설정함

로써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거시경제 운영정책 기조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
- 특히 2017년에는 다양한 금융 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고 자산가격 거품 방지에 주력할 것임.

표 2.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 비교

연도	기조 및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
2013년	·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용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2014년	·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용	· 적극적 재정정책(有力度)과 안정적 통화정책(松緊适度)
2015년	·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용	· 적극적 재정정책(加大力度)과 안정적 통화정책(靈活适度)
2016년	·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용	· 적극적 재정정책(更加积极有效)과 안정적 통화정책(穩健中性)

자료 : 각 연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공보 정리

■ [재정정책] 2016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의 ‘재정력 확대’에서 2017년에는 ‘유효성 강화’를 강조함.

- 재정정책 중점: 더욱 적극적이고 유효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급 측 구조개혁 지원, 기업 비용부담 경감, 민생개선을 지원함.
- 이에 따라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와 비율을 확대(3 → 3.5% 내외)할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2016년의 ‘신축적 운용’에서 2017년에는 ‘안정중립’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동시에 2016년과 마찬가지로 금융리스크 예방을 강조함.

-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 아래 통화정책의 안정 및 중립(穩健中性) 유지, 화폐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 적응, 통화 수문(monetary floodgate) 조절 강화,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전달 채널 및 메커니즘 원활 소통, 유동성 기본 안정 유지 등을 강조함.
- 금융 리스크 및 자산 버블 예방에 중점을 둬, 금융 업무에서 2017년에는 금융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점 영역에서 기업의 레버리지 해소(去杠杆; 대주주의 출자 확대, 채무의 주식 전환 등)와 자산 버블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통화 및 사회용자총액 증가율을 하향 조정(13→12%)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기조와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 비교

구분	2016년 (회의 일시: 2015. 12. 18~21)	2017년 (회의 일시: 2016. 12. 14~16)	변화
경제형세 판단	총체적 안정, 안정 속 진보(穩中有進), 안정 중 개선(穩中有好)	안정추세, 안정 중 개선 방향(穩中向好). 단, 공급과잉과 수요구조 고도화 모순 노정, 경제성장 내생동력 부족, 금융 리스크 누적, 일부 지역 곤란 증가	공급과잉 노정, 내생동력 부족, 금융과 지역 양극화
정책기조	· 총기조: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보장, 리스크 방지 견지 · 경제운영의 합리적 구간 유지 · 충수요의 적절한 확대와 동시에 공급 측 구조개혁에 주력	· 총기조: 안정 속 진보(穩中求進) 추구 ·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보장, 리스크 예방 업무의 전면적 추진 · 경제운영의 합리적 구간 유지 · 공급 측 구조개혁을 주 노선으로 견지하고, 충수요를 적절히 확대	공급 측 구조 개혁 우선, 개혁 촉진 추가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지속		-
재정정책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정책력 강화, 감세 정책 시행, 재정적자율의 단계적 제고, 재정지출 및 정부투자 증가와 감세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보충 · 재정적자: 2.18조 위안(중앙 1.4조, 지방 0.78조)(+0.56조), 재정적자 비율: 3% (+0.7%p, 실적대비 +0.6%p) · 기업 부담경감(5천억 위안), 증치세 전환 완료(5월), 18개 항목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모든 기업·개인) · 중앙재정 국채잔액 (2016년 말, 12.59조 위안, +1.93조 위안), 지방채 전환 발행(5조 위안, +1.8조 위안), 지방정부 채무 한도(17.19조 위안, +1.19조 위안), 지방채 특별채권 발행(4천억 위안)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정책 유효성 강화,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 기업 세금부담 감소, 민생보장 수용 보장 · 재정적자 확대: 적자 2.5~3조 위안 (지방 1조 이상) · 개인소득세 개혁 (상반기 완료 전망), 기업소득세 개혁→ 조세 감면 · 증치세 인하 가능성: 17%→ 15% · 사회보장비 인하 (五險一金) · 중앙재정 국채잔액 확대, 지방정부 치환 발행(6.3조 위안), 지방채 특별채권 발행 (5,000억 위안 이상) · PPP 항목 확대: 입고기준 20~25조, 집행 기준 4조 위안	유효한 재정정책 확대, 국민을 위한 재정정책 강조
통화정책	· 안정적 통화정책: 구조성 개혁에 부합한 금융·통화 환경 조성, 금융원가 절감, 합리적 유동성 유지 및 사회용자 총량 증가, 직접용자 비중 확대, 신용대출 구조 최적화	· 안정적 통화정책: 통화정책 안정·중립 (穩健中性) 유지, 화폐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 적용, 통화수문(monetary floodgate) 조절 강화,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전달 채널 및 메커니즘 원활 소통, 유동성 기본 안정 유지	안정적 통화정책 지속, 합리적 유동성 → 안정적 유동성 유지
	· 2016년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적절한 사회총용자 증가 · M2 및 사회총용자 규모 13% 내외 증가 · 효율적 해외 자본유출 관리, 자금의 실물 부문 유입 촉진 · 환율 결정시스템 완비	· 유동성 기본 안정 유지 · M2 및 사회총용자 증가율(1~2%p 하락) · 신규 대출 12조 위안, 사회용자 규모 14.5조 위안 · 버블과 금융 리스크 예방, 단기유동성 관리(공개시장 조작) 강화, 해외 자본유출 규제, 버블(부동산) 규제 → 자금의 실물 부문 유입 촉진 · 환율 탄력성 확대와 동시에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환율 안정 유지	총통화 축소, 자본유출 규제, 환율 안정과 탄력적 운용
리스크 예방	· 공급 측 구조개혁의 5대업무로 설정 · 금융리스크 예방, 신용 위약에 대한 의법 처리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의 효율적 해결, 지방정부 채무 전환 처리, 정부 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 발행 방법 개선 · 전방위 관리감독 강화, 융자행위의 규범화, 금융리스크 예측정보 시스템 강화, 시스템성 및 구역성 리스크 bottom line 견지	· 금융리스크 예방 중점적 추진, 자산버블 억제 및 통제 강화, 시스템성 금융리스크 발생 방지 · 기본 경제제도 견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방향 견지, 개방 확대 견지, 민영기업 심리 안정 · 예측력 강화, 정부공신력 제고 · 사회 조화 안정 유지	금융 리스크 예방에 집중, 자산버블 예방 강조

자료: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2016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정리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나.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 방향

- 2017년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설정하고, 공급 측 구조개혁을 주노선으로 하여 5대 임무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동시에 농업의 공급 측 구조개혁, 실물경제 촉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촉진 방침을 밝힘.
- 2017년에는 공급과잉 해소(去产能), 재고 해소(去库存),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비용 경감(降成本),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등 공급 측 구조개혁 5대 임무의 실질적 진전 추진¹⁾
 - [공급과잉 해소(去产能)] 철강과 석탄 산업 공급과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2017년에는 좀비기업의 처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환경·에너지 소모·품질·안전 관련 표준을 제정할 것임을 밝힘.
 - [재고 해소(去库存)] 2017년에는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해소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재고 해소와 인구 도시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3~4선의 정주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임.
 -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2017년에는 총 레버리지 축소, 특히 기업의 레버리지 축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이를 위해 기업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과 함께 기업 자체의 디레버리지 약속을 강화해갈 것임.
 - [비용 경감(降成本)] 2017년에는 기업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 역점을 두고, 동시에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 경감도 추진해갈 계획임.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2017년에는 빈곤 구제 및 탈빈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표 4. 2016년과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 5대 임무 추진 방향 비교

구 분	2016년	2017년	변화
주요 방향	공급 측 구조개혁에 진력	공급 측 구조개혁을 주노선으로 설정	
去产能 과잉해소	· 과잉 생산능력 적극 해소, 인수합병 확대, 파산·청산 최소화, 인력배치 최적화, 엄격한 신규 증설 통제, 새로운 과잉생산능력 방지; 철강(4,500만 톤)과 석탄(2.5억 톤) 감축 · 기업 주도·정부 추동·시장 인도·의법 처리에 구조 조정, 지역 부합·분류에 근거한 점진적 처리, 사회안정과 구조조정 연계 · 시장화 파산 절차 제정, 파산·청산 안전 처리 가속화 · 재정 및 세제 지원·불량자산 처리·실업인원 재취업 및 생활보장 및 전문장려보상정책 시행, 자본시장과 기업합병 결합	· 철강·석탄 산업 과잉 해소 지속 · 좀비기업 처리 강화 · 환경보호·에너지 소비·품질·안전 관련 법규·표준 엄격 집행 · 합병 및 구조재편 추진 조건 조성, 기업채무 처리 완전화 · 인력 재배치 최적화	좀비기업 처리 강화 및 환경보호, 에너지, 안전 등 표준 강화

1) 2016년 공급 측 구조개혁의 5대 임무는 공급과잉 해소, 비용 경감, 부동산 재고 해소, 유효공급 확대, 금융 리스크 예방·해소 등이었음.

표 4. 계속

구분	2016년	2017년	변화
去库存 재고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 · 호구인구 도시화를 제고와 주택제도 개혁 심화, 농민공 시민화, 부동산 재고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 호구제도 개혁 실시, 농업 이전인구 등 비호구인구의 직장 소재지 정착, 직장 소재지 주택 구매 또는 장기 임대 수요 형성 · 주택제도 개혁 방향 명확화: 신시민 주택수요 만족, 구매와 임대 병행 중시 · 주택제도 개혁, 비호구 인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주택 임대시장 발전, 자연인과 기관의 재고 상품방 구입 장려, 임대주택 시장의 주택공급자 양성, 전문 주택 임대 전문기업 장려 · 부동산 개발기업의 시장 규율 순응형 판매전략 장려, 적당한 상품주택 가격 인하, 부동산업 합병 촉진, 산업 집중도 제고 · 일정 기간 경과 제한 조치 취소	· 분류 통제, 지역 상황에 따른 대책,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 중점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와 인구 도시화의 융합 추진, 3~4선 도시와 특대도시 인프라 연결 네트워크 강화, 3~4선 도시 교육·의료·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농업 이전 인력 흡인력 강화	3~4선 도시 재고 해소
去杠杆 레버리지 축소	· 5대 임무 하나로 명시, 단 구체적 조치 없음.	· 총 레버리지 통제: 특히 기업 레버리지 축소에 중점 · 기업의 시장화·법치화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지지, 기업 자체 레버리지 약속 강화, 기업 레버리지 축소 · 정부 기재 행위의 규범화	기업 레버리지 축소에 중점
降成本 비용경감	·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기업 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 콤비네이션 실시 · 기업 조세 부담 경감(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완료, 5.1), 불합리한 비용 정리, 제조업 증치세율 인하 연구 · 사회보험 인하 및 간소화(五险一金) · 기업 재무비용 절감, 금리 정상화 환경 조성 · 전기료 인하, 전기료 시장화 개혁, 석탄-전기료 연동제 완비 · 물류 원가 절감, 유통체제 개혁	· 감세·비용 경감·요소 비용 절감에 업무 집중 · 거래비용(특히 제도성 거래비용) 절감,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물류 원가 절감 · 노동시장 활력 제고, 기업내부 원가 절감 노력 강화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노동시장 활력 제고
补短板 유효공급	· 유효공급 확대 · 구빈제도 강화 · 기업의 기술 개조 및 설비 확대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프라 보충 · 신산업 육성 · 인력개발 투자 확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족 해소, 발전 및 제도적 부족 해결 · 탈빈곤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 강화, 취약 부분에 역량 집중, 구빈 및 탈빈곤의 추진을 위한 각 정책 조치의 뿌리 정착	탈빈곤 강화

자료: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2016年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정리.

■ [농업 공급 측 구조개혁] 금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공급 최적화, 농산물 가격 시장화, 농촌 및 농지 제도 개혁, 도시화와의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함.

■ [실물경제 진흥] 자금의 단기 유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2017에는 실물경제를 진흥시킴으로써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품질과 핵심경쟁력 제고, 혁신에 의한 발전 등을 견지하고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외자 도입의 확대 등을 중시함.

■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촉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국정과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함.

-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 유동인구에 근거한 토지공급 제도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버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예방함.

표 5. 농업 공급 측 구조개혁, 실물경제 촉진, 부동산 시장의 장기발전 방향

구 분	2016년	2017년	변화
농업 공급 측 구조개혁	(유효공급 확대) · 농업생산 확대, 농산품 유효 공급 보장, 식량안전 보장, 농 민 수입 안정 증대, 농업 현 대화 기초 건설, 당지 양식 저장, 농업 종합 생산력 제고 및 농산품 품질 제고	· 녹색 우수 농산품 공급 증대, 농촌 환경 관리 강화,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가격 개혁 · 토지도급의 ‘삼권분할’ 방법 실시, 농촌 재산 권 및 농지제도 개혁, 농지보호 레드라인 엄 수	농산품공급 최적 화, 가격 시장화, 농촌 및 농지제 도 개혁, 도시화 협력 추진
실물경제 진흥	-	· 고품질과 핵심 경쟁력 중심 견지, 혁신 추동 발전 견지,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확대 · 장인정신, 전통 브랜드(百年老店)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신기술을 이용한 전통 산업 전면 개조 · 법치화 시장환경 조성, 외자 유인 강화, 외자 기업의 실물경제 촉진 작용 촉진 · 산업 최적화, 대기업 경쟁력 제고, 시장진입· 요소배분 분야 혁신, 중소기업의 공평경쟁 시 장 참여	자금의 脫虛向實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건 강발전 촉진	-	· 주택 투기방지에 금융·토지·재정 및 세제· 투자·입법 수단 종합 이용, 국정 및 시장 상 황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체제 구 축, 부동산 거품 방지, 폭등과 폭락 방지 · 대출자금의 투기 주택 매입 엄격 제한 · 사람-지역 연계정책(인구 유동량에 근거한 건 설용지 배분 지표) · 지방정부 주체 책임제 실시, 가격 폭등 도시 토지공급 증대, 주택용지 비율 제고, 도시 유 휴지 이용률 제고 · 특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연계 발전 · 주택 임대시장 입법 강화, 임대기업의기구 화·규범화 가속화 · 주택시장(개발, 판매, 중개) 관리 강화	부동산 버블 예 방; 인구 유동 상황에 근거한 건설용지 배분 지표 설정

자료 :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2016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정리

■ 개혁 및 개방 정책에 있어서는 재산권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대일’을 핵심으로 하는 대외개방 전략을 지속해 갈 것임.

- (개혁정책) ‘개혁 촉진’을 2017년에 통제해야 거시경제 목표 중 안정성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설정하는 등 2017년에는 개혁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2017년에는 국유기업, 재정·세제, 금융체제, 양로보험 등 기본적인 분야의 개혁 이외에 특별히 민간 투자의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인의 재산권 보호, 기업가 정신 보호 등 재산권 개혁을 강조함.
- (대외개방 정책) 2017년에도 “일대일로”건설을 대외개방전략의 핵심에 두고, 대외개방 분야도 확대해 갈 계획임.

표 6. 2016년과 2017년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 방향 비교

구분	2016년	2017년	변화
개혁	· 구조성 개혁 추진 및 전면 심화 개혁 필요 ·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개혁, 금융체제개혁, 금융감독체제 개혁, 은행체제개혁, 양로보험제도 개혁, 의료위생체제개혁	· 재정과 세제·금융·토지·도시화·사회보장·생태문명 등 7개 기초 영역의 개혁 강화 ·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재산권 보호, 재정·세제 및 금융관리감독 개혁, 양로보험 등에 대한 Top-down 디자인 개혁 · Top-down 설계와 지방과 기층의 적극성과 주동성 발휘	혼합소유제, 7대 영역 개혁통합, Top-down 설계와 지방의 적극성 결합
	· 국유기업 개혁 적극 추진, 국유자본 투자·기업운영 개조 가속화, 독점 업종 개혁 가속화	· 국유기업 개혁 심화, 효율적 회사법인 거버넌스 구조 구축 및 유연·효율성 있는 시장화 경영 매커니즘 형성 ·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 돌파구, 전력·석유·천연가스·철로·민항·통신·군공업 분야의 거버넌스 정비 · 국유자본 투자 및 기업 운영 개혁 시범 가속화	혼합소유제 개혁 7대 영역 거버넌스 정비
	-	· 재산권 보호제도 건설 강화 (민법 편찬, 조직 및 자연인 재산권 보호 강화) · 기업 재산권 침해 민원 처리 강화 · 기업가정신 보호, 기업가 혁신·창업 지지	자연인 재산권 보호, 기업가 정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재정·세제 개혁 가속화: 중앙과 지방의 사업권과 지출 책임 분권화, 지방 세제 정비·지방 발전능력 증강·기업부담 경감 등 핵심 문제 해결 추진	· 재정·세제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 안정 추진 · 중앙과 지방의 사업권과 지출책임 분권화 개혁 추진, 중앙과 지방 수입 구분 총체 방안 제정 가속화, 건전한 지방세 체계 방안 제시	중앙과 지방 수입분배 방안
	· 금융체제개혁 가속화: 금융감독체제 개혁 강화(대출기능 완비·기초제도·시장관리감독체제·주식시장의 투자자 합법적 권익 보호), 은행체제 개혁 가속화(국유상업은행 개혁 심화, 녹색금융 발전)	· 금융체제 개혁의 연구 및 시행 : 다층적 자본시장 체제 개혁 심화, 국유상업은행 거버넌스 완비, 점진적인 민영은행 발전 추진	자본시장 개혁 민영은행 발전

표 6. 계속

구분	2016년	2017년	변화
개혁	· 양로보험제도 개혁 가속화: 개인구좌 정비 등	· 양로보험 개혁 추동, 양로보험제도 개혁 방안 제정 가속화	양로보험 개혁 강화
	· 의약위생체제개혁: 의료보험 지원을 통한 난치병 의료비 문제 해결 및 양로보험제도 개혁 추진	-	-
개방	· 무역구조 고도화(优进优出), 적극적 외자 이용, 국제 생산능력 및 설비제조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적 참여 · 외자이용 환경 개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지재권 보호 고도 중시, 내 외자기업의 공평 대우 · ‘일대일로’ 건설 추진, AII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의 금융지원 기능 강화, 주요 지표성 프로젝트 실시	· 대외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 정책성·개발성·상업성 금융 역할 발휘	대외개방 중점 추진, ‘일대일로’ 건설 추진

자료 :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2016中央经济工作会议 공보 정리

3. 2017년 중국경제 전망

■ 2017년에도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나, 급격한 경기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은 제19기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인사 교체기로 지방 지도부의 성장 욕구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13.5 규획 집행 2년 차로 주요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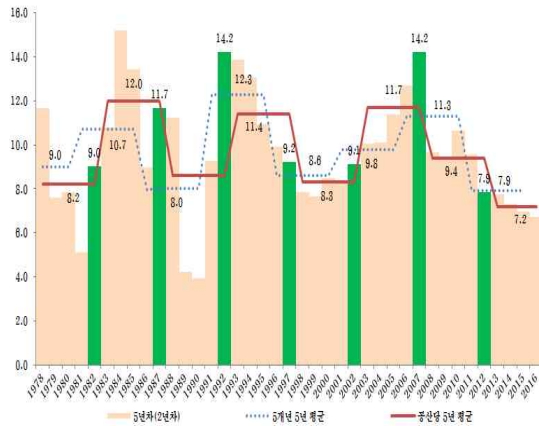
■ 2017년도 GDP 성장률 목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할 때 6.5% 내외로 조정되거나 최근의 안정적 성장세 강화 등을 감안하여 금년처럼 6.5~7.0%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예측기관들은 2017년 중국경제가 6.2~6.5% 내외 성장 전망

- 2017년에는 지방부채 리스크 및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소비 및 투자 부양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대비 소폭 하락 예상
- 과잉설비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채무 조정 등 5대 공급 측 구조개혁 본격화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 지속 전망

그림 20. 중국 정권 교체기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CEIC.

표 7.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2016	2017
KIEP	6.6	6.5
IMF	6.6	6.2
OECD	6.5	6.2
World Bank	6.7	6.5
Oxford Economics	6.5	6.2
Global Insight	6.6	6.3
ADB	6.6	6.4
CASS	6.7	6.5
국가신식중심	6.7	6.5
IB평균	6.7	6.4

자료: ADB(2016. 9); Oxford Economics(2016. 9);
 EIU(2016. 9); Global Insight(2016. 9);
 사회과학원(2016. 9). 7개 IB 평균 (BofA, JP
 Morgan, Morgan Stanley, Nomura, Barclays, Credit
 Suisse, SC 등)

- 2017년 중국경제가 'L'자 형 성장의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요의 저점 도달, 3대 요소(수출, 인프라투자, 부동산)의 저점 도달, 공급 측면(공급측 개혁 성과 → PPI 상승세 전환, 공업기업 이윤 상승,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의 저점 도달(전임 DRC 부주임 채世錦, 2016.11.23)
- 향후 일정기간 중국경제는 V자형의 반등을 실현하기 보다는 L자형의 성장패턴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 중국경제가 저점 도달(王一鳴, DRC 부주임)

■ 2017년에도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인프라와 PPP 투자 증대 및 제조분야 투자 회복 등 기대

- 2017년에는 부동산 투자 둔화, 부동산 관련 소비 및 과 자동차 소비 둔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등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8. 2017년 분야별 환경 분석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종합
경제 성장	· 수출의 완만한 회복 ·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 지속	· 부동산 판매 및 투자 하락 · 소비의 완만한 하락	6.5% (6.2~6.5)
물가	· 돼지고기 가격 안정	· 원자재 가격 상승→PPI 상승률+전환 · 유가 급 상승 시 CPI 3.0%	2% 내외
투자	· 인프라 투자 지속(+18~20%): 생태건설, 도시 인프라, 신에너지 및 환경, 공공사업 · 이윤율 회복, 재고 감소, PPI 상승, 실질대출 금리 하락/감세정책 → 민간 제조투자 회복 · PPP 사업 집행단계(3년 차): 17년 3~4조 위안 * 투자구성: 제조 32%, 부동산 23%, 인프라 25%	·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 조정기 진입 · 제조업 높은 레버리지 → 투자 부진 ※ 레버리지 비율: 260%(기업 160%) · 버블 억제정책, 대출 및 구매 제한, 부동산 구매연령 감소 → 부동산 투자 둔화(+1% 내외)	16년 수준 (9.6%)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표 8. 계속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종합
소비	· 서비스와 신흥산업에서 고용 확대 · 소비고도화 → 고급재 및 서비스 수요 증대 * 1.09억 명의 중산층, 농촌주민 소비 고도화 * 도시주민의 서비스 수요(도시엔겔계수 35%) · 두자녀 소비(5년 아동 관련 지출 연평균 +8.2%) · 신에너지 차량 소비 증대 (+30% 이상)	· 부동산 위축→ 부동산 관련 소비 둔화 · 경기둔화 · 구조조정→임금 · 소득증가 둔화 · 취득세 감면 종료→자동차 판매 둔화	하방 압력 +10% 내외
수출	·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 세계경기 완만한 회복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보호주의 대두, 중·미 통상마찰 · 글로벌 경기 · 투자 위축→가공무역 위축 · 국내소비 둔화 → 수입 탄력성 하락	감소세 둔화 (-5% 내외)
환율	· 중국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 · 2016년 기업의 무역신용 등 상환 압력 해소 → 자본 유출 압력 다소 완화	·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 * 15년 3.0% → 16년 1.9% → 17년 1.3% · 미 금리 인상, 미 달러 강세 지속 → 자본유출 압력 지속 · 환율조작국 지정, 고관세 부과 등 → 절하 폭 확대	5% 내외 절하

자료: 저자 정리.

작성자: 양평섭 북경사무소장/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